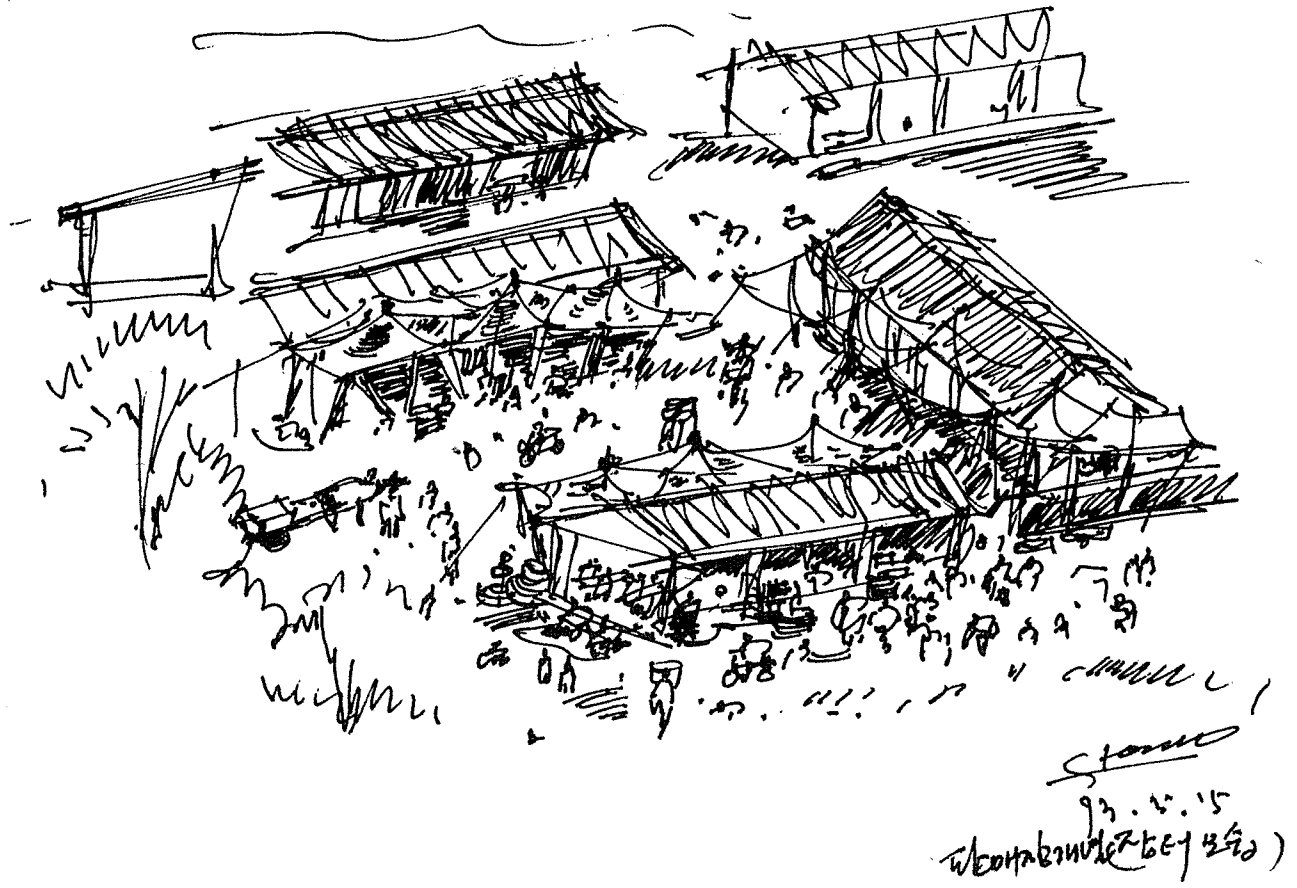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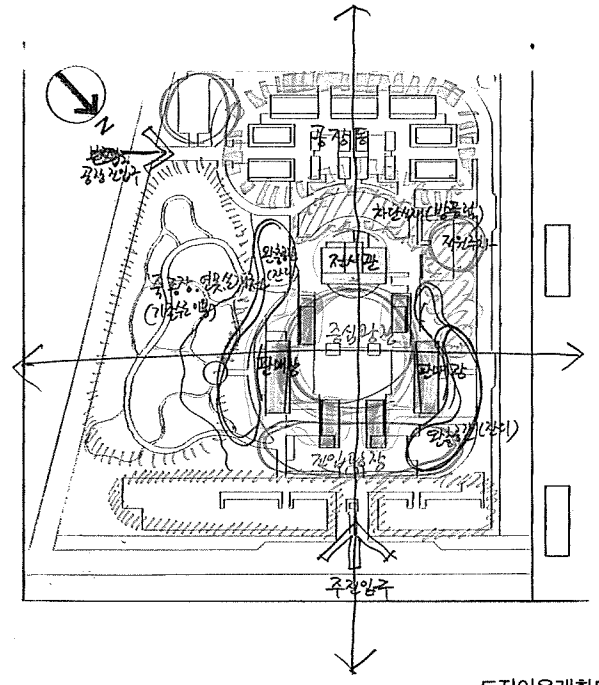
담양 죽세공예 진흥단지 계획(안)

Tamyang Bamboo Industrial Art Promotion Center Project

南相金/반중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Nam, Sang-Geum



우리의 시골장터는 이젠 사라져가고 있지만, 정겹고 인간적인 삶의 참다운 모습이 담겨있다.
장날이 되면 새벽부터 상인들은 자리를 잡고 천막을 치느라 기동을 세우고 줄을 이리저리 당겨 일시적인 폐쇄공간을 만든다.
쌓여진 물건을 풀어 펼치고 5일만에 만난 사람들과 인사하고 얘기하며 장꾼들을 맞이하려고 분주하다. 이날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장소도 아니다. 이동네 저동네 얘기를 주고 받는 인간적인 교육의 장이며 어쩌면 모처럼의 도시적인 흥미를 맛보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도 어느덧 과거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이젠 민속이란 이름을 덧붙여 추억거리로 삼으려 한다.
그 흥미 진진한 장터의 모습은 현대적인 장소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판자지붕, 대나무기둥, 천막, 줄... 등은 현대적인 건축의 형태요소(막구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토지이용계획도

